

## 바다를 개척한 신석기인

양성혁, 102호 신석기실 18:00~18:30

약 1만 년 전 무렵에 시작된 후빙기에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변동, 계절풍의 이동에 의한 강수량의 변화, 그에 따른 산림한계의 변동과 식생의 변화 등 인류를 둘러싼 환경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라는 위기 속에서 신석기인은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여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한반도 살았던 신석기인이 먼저 눈을 돌린 곳은 바다였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곳곳에 바다가 생겨났으며, 그곳에는 물고기, 조개 등 식량자원이 풍부하였습니다. 주변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하는 어로활동은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주요한 생계수단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정착생활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신석기시대 초기의 유적이 주로 바닷가나 큰 강변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가장 오래된 어로활동의 증거는 부산 동삼동 유적, 창녕 비봉리 유적, 울진 죽변리 유적, 양양 오산리 유적 등지에서 발견됩니다. 바닷가에 위치한 신석기시대 유적들에서 당시 식량으로 이용했던 각종 어류와 패류, 바다 포유류의 뼈가 발견됩니다. 이와 함께 식량 획득을 위해 사용했던 낚시와 작살, 그물추 등은 물론이고 배의 흔적도 확인되어 신석기시대의 어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1. 이음낚시 복원 모습



그림2. 그물무늬 토기

## 백제의 불교조각

선유이, 301호 불교조각실 18:00~18:30

백제는 한성(현재 서울)에서 웅진(현재 공주)으로, 그리고 다시 사비(현재 부여)로 도성을 옮겼습니다. 처음 백제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한성기인 침류왕 원년(384년)으로 전해지나, 한성·웅진기 불교관련 유물과 사원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백제에서 불상과 사원이 본격적으로 조성된 것은 538년 사비로 도성을 옮긴 이후부터입니다. 이 시기 사원은 수도였던 부여에 집중되어 있으며, 7세기 무왕대(600~641년 재위)부터는 별도설別都說 및 천도설遷都說이 제기되고 있는 익산지역에도 활발히 조성되었습니다. 불교는 국가적으로 중시되었고, 부여 정림사지와 익산 미륵사지 등에서 보듯 사원은 도성 안에서 기념비적인 건축물이었으며, 불상은 그 사원 안에서 탑과 함께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백제 불상의 대부분은 작은 크기의 금동불, 석불, 소조불로 부여의 절터를 중심으로 발견되고 있지만,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 태안 마애삼존불, 서산 마애삼존불, 익산 연동리 불상처럼 중국과 공주, 부여를 잇는 교통로에 위치한 지방에서는 큰 규모의 석불도 조성되었습니다. 백제는 지속적으로 중국 남북조의 여러 왕조와 교류하며 백제만의 고유한 불교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삼국시대 불상은 관련 기록과 남겨진 유물이 많지 않아 개별 불상의 국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백제 문화를 설명하는 부드러움과 온화한 표현은 부여 군수리사지에서 나온 불상과 보살상(6세기 중엽 추정),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서산마애삼존불(7세기 초 추정)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림1. 부여 군수리사지출토 석조불좌상



그림2. 금동보살입상



제69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10월 19일)

## 백제 금제품의 제작 특성

최기은, 106호 백제실 19:00~19:30

고대 국가에서 금제품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때는 4~5세기부터이며, 이 때 금제귀걸이 등 금속공예품이 폭발적인 증가를 보입니다. 이번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백제 금제품의 제작 특성’을 주제로 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위해 ‘백제 금제품의 성분 조사 프로젝트’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데, 분석 대상 유물은 529년을 하한으로 하는 웅진기 왕릉인 무령왕릉 출토 금제품, 6세기 전반 웅진기 중앙 귀족 세력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공주 금학동 고분군 출토 금제품,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한성기 지방 재지세력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천안 용원리 고분군 출토 금제품 등 70여 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령왕릉 금제품의 금함량에서 91.5~99.9%의 분포범위를 나타냈으며, 특히 왕과 왕비의 관장식, 귀걸이, 목걸이 등 중요 착장품에는 금순도가 매우 높은 재료(Au 99% 내외)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자연금의 화학조성이 대개 40% 내외의 은을 함유한다는 점에서 그 당시 금제품의 제작에 있어 ‘정련’ 공정을 통한 순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령왕릉 출토 금제품의 분석결과에 반해, 비교 자료로서 공주 금학동 고분군 출토 금제품의 금함량은 86~92%의 분포범위를, 천안 용원리 고분군 출토 금제품의 금함량은 72~86%의 분포 범위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시기별로는 편년이 올라가는 천안 용원리 출토 금제품의 경우 금순도 면에서 제일 낮은 반면, 공주 무령왕릉 및 금학동 출토 금제품의 경우는 금순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동시기로 판단되는 무령왕릉과 공주 금학동 출토 금제품의 금순도가 차이 나는 것은 계층, 신분 간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여겨지며, 이는 금이란 금속의 희귀성 및 상징성을 고려해 본다면 금제품의 순도에 있어서 신분상 위계의 구분이 분명히 존재하였음을 상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림1. 무령왕릉 금제관장식



그림2. 형광X-선분석



그림3. 전자현미경분석



## 청동 은입사정병

신명희, 302호 금속공예실 19:00~19:30

정병淨瓶은 깨끗한 물을 담은 물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인도에서 수행하는 승려들이 여행할 때 들고 다니던 물병으로, 인도를 방문한 중국 구법승을 통해 중국에 알려졌고, 관음신앙과 연결되어 병을 고치는 도구이자 관음보살이 항상 지니고 다니는 지물持物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부처 앞에 깨끗한 물을 담아 바치는 불교 공양구로 쓰이면서 쓰임새가 점점 넓어졌습니다.

정병은 원래 일반 물병과 모양이 비슷하였으나 주둥이가 하나인 모양에서 물을 넣는 곳과 따르는 곳이 분리되며 모양이 변하였습니다. 몸통 옆에 물을 따르는 부리처럼 생긴 입구(귀패)로는 물을 담으며, 윗부분에 있는 긴 대롱모양의 첨대尖帶로 물을 따릅니다.

불·보살이 지니는 정병은 단순히 깨끗한 물을 담은 병의 의미를 넘어 부처의 진리에 목마름을 해소한다는 상징성이 더해지면서 구체자를 나타내거나 자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병 안의 감로수로 중생의 목마름을 덜어주고 고통과 병을 낫게 해준다는 관음보살의 정병은 점차 관음보살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병은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지는데, 금속뿐만 아니라 도자기나 토기로 만든 것도 있다. 여러 가지 공예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무늬를 표현하기도 하며, 청자 정병은 양각이나 음각으로 무늬를 새기기도 하지만 대부분 상감기법으로 무늬를 표현하여 화려함을 뽐냅니다.



그림1. 청동 은입사 물가 풍경무늬 정병

금속으로 만든 정병은 대부분 무늬가 없으나 일부 청동에 입사기법入絲技法으로 물가 풍경무늬나 용무늬를 새긴 것이 있습니다. 입사기법은 일종의 상감기법으로 금속 표면에 음각 선으로 파고 그 파낸 자리에 가는 금속 실을 박아 넣어 무늬를 만드는 기법으로, 은실을 쓰는 경우 은입사기법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정병에 새겨진 물가 풍경무늬[蒲柳水禽文]는 가지를 늘어뜨린 버드나무나 부들, 갈대 등과 같은 물가에서 자라는 식물들과 물 위를 헤엄치거나 날고 있는 오리, 기러기, 원앙 등 물새들을 소재로 하여 물가 풍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한 것입니다. 물가 풍경무늬는 고려시대 공예품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독창적인 무늬로 여러 기물에 다양하게 사용하며 널리 유행하였습니다.